

생리주기 짧아지면 의심...시험관아기시술 임신 도움



건강 바로 알기 난소기능 저하

오인경
시월병원 원장

34세의 회사원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2년이 지났지만 작장 생활로 인해 바쁜 탓에 임신 계획을 미뤘었다. 그러다가 건강 검진상 난소에 혹이 발견돼 난임 클리닉을 방문했다.

초음파상 난소에 직경 2.5cm크기의 혹이 하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측난소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아 보여서 난소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혈중 AMH(항뮬러관 호르몬: 여성의 난소기능과 생식능력을 판단하는 검사) 호르몬 검사를 실시해보니 난소 나이가 이미 42세로 노화된 소견을 보였다. 이 여성은 20대 후반에 심한 월경통을 동반한 난소 자궁내막증으로 복경수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최근 2년전 부터는 월경주기가 25일로 짧아지고 월경양이 감소한다 기간도 짧아졌다고 한다. A씨는 이미 난소수술로 양측 난소의 정상조직이 많이 줄어들고 손상을 받아 난소크기가 작아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수술 후 재발과 난소기능 저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혼인을 앞당기도록 설명하고, 임신계획을 적극적으로(시험관아기시술 포함) 주문하고 있다.

◊난소기능저하란=여성의 난소기능은 임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소

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사춘기의 이차 성징 이후 매달 난소에서 가지고 있는 약 1000개의 난소세포를 성숙시켜 그 중 한 개씩 난자를 배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 난소는 만35세를 기준으로, 급격히 보유 난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40세가 넘게 되면 기능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난소기능 저하는 만 나이 약 40세 초반 기준의 평균 난소의 기능적 능력을 뜻하게 되며, AMH(항뮬러관 호르몬) 라는 수치로는 1.0 미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 나이 40세 이전에도 난소기능저하가 올 수 있다.

태생적으로 작은 크기의 난소를 가지는 여성도 있고, 난소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기능저하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평소의 생활습관, 극심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난소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20대의 젊은 여성도 난소기능저하를 진단받을 수 있고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감소한 난소의 기능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임신계획이 없더라도 혹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도 난소기능이 본인 나이 대비 5-10세 정도 높은 나이로 측정된다며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연령에 비하여 난소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임신계획이 전혀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난자 냉동 등의 적극적인 계획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난소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생리양이 줄어든 경우가 흔하다.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우리 몸의 뇌에서부터 난소에 이르러 균형 있게 조절되고 있는 태아 염색체 이상

자가궁내막의 착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

만 35세 기준 난자수 급격히 감소 환경적 요인 20~30대 여성도 위험 임신계획 있다면 수정란 확보 최선

짧아지고, 이어서 무월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생리 주기가 평소보다 짧아지고 있다면 난소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

◊임신 계획=일단 난소기능 저하로 진단되면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난소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주기 자연임신 가능성이 5%이하이고 정상 출산 가능성은 더 낮게 된다. 난소기능저하는 점점 진행되므로 시간을 보낼수록 임신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적극적인 임신시도라고 하는 시험관 시술의 경우에도 시험관 아기 시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양질의 수정란 확보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주기당 10%~20% 임신 착상율을 보이나 양질의 수정란을 3개정도 선택하여 냉동배아 이식술을 선택하면 약 30%의 임신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 살 한 살 연령이 높아갈수록 평균 5%정도 임신 성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시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수정란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같은 정도의 난소기능저하라 할지라도 39세 이전에 시험관 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임신 성공률은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여성의 나이가 난자의 질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태아 염색체 이상 자가궁내막의 착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



시월병원 오인경(오른쪽) 원장이 바쁜 사회 생활로 임신을 미룬 여성을 상대로 효과적인 임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 임신유지와 유산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난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적극적인 임신시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사회적인 요인상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난소의 기능저하에 많은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좀더 적극적인 검사(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35세 이상의 부부에서는 6개월 임신시도 후에도 임신되지 않으면 꼭 난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30대 연령 후반 여성에서는 처음 임신 시도 시부터 검사를 먼저 해보기를 추천한다.

사정상 당장에 임신계획이 없어서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부부도 난임 기본검사(호르몬, 자궁난관 조영술, 정액검사)를 먼저 해보고, 임신을 미룰 여유가 있는 지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다른 요인에 의한 난임보다 난소기능저하에 의한 난임은 시험관 시술에서도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미 소모된 난소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기에 적극적인 검사와 시술을 통해 임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안과-도시철도공사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



광주 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 2015년 7월 신세계안과의 후원을 통해 상무역 4번 출구에 조성된 '사랑의 건강계단'은 한 명

의 시민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10원이 적립된다. 지금까지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건강계단을 이용해 3500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또 신세계안과는 기부처에 150만원 상당의 안전감염진권을 지원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 (신세계안과 제공)

화순전대병원 감염관리실 이지숙 간호사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화순전대병원 감염관리실 이지숙 간호사가 '2021년 감염병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이지숙 간호사는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병원내 대응 업무와 지역사회 코로나 환자 관리 및 예방 활동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생체의료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어떻게

전남대 생체의료연구센터,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워크숍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가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여수 소노감 호텔에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생체의료산업 기업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 참여기관, 수혜기업, 유관기관 전문가와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사업수행 상황 보고, 2022년 사업 계획과 생체의료산업 발전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류상진 교수의 21년도 스마트특성화사업 성과 보고에 이어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정재훈 부장(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소개 및 발전계획 ▲노상일 책임(KTR 글로벌인증센터) CE MDR의 변경과 주요 동향 ▲박찬호 교수(경북대학교 치과생체재료학교실) 기업지원에 위한 장비 활용 ▲최준환 교수(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안전의 실천적 접근 강연이 펼쳐졌다. 더불어 쉐케이제이메디텍등 15개 기업이 참여하

는 생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생체의료산업은 의료기기산업체의 공동 성장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 전략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기업지원 사업이다.

올 한해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와 사업 참여기관들은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더불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중소의료기기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인건 지원,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박상원 센터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는 GLP 비임상시험 세 포, 동물 시험을 준비하는 등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목 받는 산업인 만큼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